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953-967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남 순 현† 임 소 영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 431명(남학생 226명, 여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때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부모의 정서적 언어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의 거부적인 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위협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게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언어학대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긍정적 양육태도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내 만연되어 있지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있지 않은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지만,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소년기 언어학대, 긍정적 양육태도,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적 철수, 자아존중감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순현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59-1
Tel : 062-940-5419 / E-mail : shnam@honam.ac.kr

미국 아동학대 예방센터(1997)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약 2백 90만명의 아동학대 및 방치사례가 접수된다고 한다. 보고되지 않은 수치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Gelles와 Straus(1988)는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곳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신체적으로 모욕당하고, 매맞고,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률을 살펴본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도 심각한 가족내 자녀학대가 그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대가 아동기에 걸쳐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청소년기 학대에 대한 연구의 시급함을 암시한다.

그 단편적인 예는 '명문대생 이군의 부모 토막살인사건(조선일보, 2002. 5. 2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그 잔혹함으로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써 패륜범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그 역시 애정없는 부모의 구타, 특히 경멸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말투와 같은 언어학대를 경험해 오면서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이 한순간에 부모에게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보더라도 알코올중독 아버지의 신체학대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결국 투신자살을 하거나(서울신문, 2003. 8. 8), 부모의 언어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등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다.

특히, 표면화되어 있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학대로서 언어학대는 개인의 정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뜻 학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고, 학대인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클 것이다.

청소년기는 한 개인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언어학대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유실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오는 정서적 혼란을 견뎌낼 수 있다면, 분명 이는 언어학대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다. 김정이(2004)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보호요인 중 하나로써 청소년이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언어학대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조절요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통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정내 만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 언어학대 양상을 파악해보고, 둘째,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셋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언어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완충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언어학대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녀학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를 독립된 주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범주 속에서 청소년학대를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13세 미만의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들이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대의 심각성을 보고하거나 발달의 저해요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받고 있으나 청소년 스스로가 지각하거나 혹은 지각하지 못하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청소년학대, 특히 생활 속의 언어적 습관화로 인하여 외현화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언어학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학대는 학대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 Straus(1991)는 언어학대란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의사소통 혹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으로서,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며 비언어적인 상징적 공격을 내포하는 정서학대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허남순(1993)은 언어학대를 정신적 학대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며, 직접학대와 간접학대로 구분하였다. 직접학대는 폭언, 거부의 몸짓이나 표정, 언어 또는 아동의 특정 정서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간접학대는 가족간의 불화에 의한 구타, 폭언 등으로서 아동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고성혜(1992)는 정서학대의 한 영역으로서 언어학대를 포함시켰으며, 김혜련(1994)은 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부당한 취급, 심리적 부당한 취급 등과 같은 용어들이 정서학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용어들이 모두 비신체적 학대유형 중에서 정서학대에 관한 의미로서 언어학대라고 하였다. 한편 Ketterman(2000)은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것이 바로 언어학대라고 하였다.

Holbrook(1992)에 따르면, 위와 같은 언어학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첫째, 해롭다(hurtful). 둘째, 상대방의 본성과 능력을 공격한다. 셋째, 명백(overt)하다. 넷째, 언어적으로 거칠고 험한 경멸은 지극히 진지한 관심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조종과 통제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일곱째, 예측하기 어렵다. 여덟째, 특정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아홉째, 이중메시지로 표현된다. 열번째, 일반적으로 강렬하며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확대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언어학대에 관한 개념적 정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등이 비신체적 학대 영역으로서 통합적 합의없이 혼합되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전제로 특히, 정서학대의 여러 범주 및 다른 학대유형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언어학대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언어학대란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모의 의사소통 혹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정서학대 행위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가는 곳이고, 구성원들간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생활에서 요구되는 전인적 발달을 이루는 기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발달에 있어서 후천적 환경으로서 가정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은 부모이다.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양육태도라고 하며(Becker, 1964), 이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Fishbein & Aizen, 1975),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다.

대부분의 자녀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학대와 양육태도를 양육방식의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자녀에게 심하게 학대를 하는 부모에 대해서 당연히 자녀는 부정적인 지각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녀가 지각할 때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에도 자녀는 학대를 받아왔을 수 있다. 특히 신체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외현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받지 않는 언어학대와 같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그런 양상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각각 상호독립적인 변인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언어학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공격적, 적대적 태도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Davies와 Cumming(1994)에 의하면, 부모의 적대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위협이 되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빠져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는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며 위축된 양상을 나타내거나, 부모의 적대적 태도에 반발하여 행동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하며, 부모에게 거부, 무시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Hurlock, 1987).

한편, 안정된 부모-자녀관계는 가족 내에서 야기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막아주는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mery, 1982). 좋은 부모-자녀관계는 부조화된 가정의 아동에게 보호적인 역할을 하며, 한쪽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양쪽 부모와의 빈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덜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참여와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된 연구결과(Westerman & La Luz, 1995)를 통하여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협동적이고, 우호적이며, 정직하고, 안정된 성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Symonds,

1949), 수용과 애정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에 대해 신뢰를 갖고 성장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Sears, 1965)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의 지표로서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 내 부정적인 결과, 예컨대 부부갈등, 가정폭력, 자녀학대 등에 대해서도 보호막이 되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언어학대, 양육태도 및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 것처럼, 이 시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가 청소년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서적 불안정은 청소년들에게 격렬하고, 파괴적이며, 극단적인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초래한다.

적응이란 유기체가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Kauffman(1983)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의 기대나 그들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였고,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및 하은혜(1997)는 임상경험을 통해 부적응을 초래하는 내향성 증상군으로 불안 · 강박증상, 정신분열증상, 신체증상, 우울 · 위축 증상 등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이나 공격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표면화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공격성은 생후 초기의 공격적 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에 대한 정서적 무감각이나 습관화를 야기시켜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Tremblay, 2000).

아울러 김광일(1988)은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폭력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여 자존감이 매우 낮고, 내면에 가득한 분노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다양한 신체증상들을 호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대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아동에 비해 학대아동은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적고, 복잡하고, 성가신 행동을 하기 싫어하고, 기분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짜증을 내고, 공격적이고 비통제적이거나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기가 죽어 늘 조용하고 위축된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Brenner, 1984; Halperin, 1979). 국내연구(김혜련, 1994; 연진영, 1992; 이혜련, 2000)에서도 학대가 심할수록 자녀들은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사회적 철수, 강박, 우울과 같은 경향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아울러 서영숙(2001)과 Solomon과 Serres(1999)는 언어학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의 연령은 20-30대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모의 저연령이 부모됨의 미성숙과 양육경험의 부재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김혜영(2000)은 아버지의 지나친 통제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철수와 같은 많은 내재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증상과 비행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관성없고 빈번한 신체적 혹은 비신체적 체벌뿐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건강한 청소년 발달에 지대한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심하게 경험한 자녀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 저하를 보이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며, 성격 특성이 파괴적, 반항적이고, 과도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사회적 철수와 자아존중감 저하는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Kristyn, 2002), 청소년들에게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병리적 소인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Robin & Mills, 1988),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지표로서 사회적 철수와 자아존중감 저하가 부모의 언어학대 및 양육태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유목적적 편의표집에 따라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에서 추출된 중·고등학교 학생 431명이다. 본 설문지는 2005년 7월 30부터 8월 20일에 걸쳐 연구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담임교사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455부가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45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이 많은 24부를 제외한 총 431부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13세부터 18세까지였고, 평균연령은 14.66세였다. 남녀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226명(52.4%)이고 여학생이 205명(47.6%)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부모 모두 40세에서 49세사이가 가장 많았고(아버지, 354명(82.1%); 어머니, 282명(65.4%)), 부모의 교육수준도 고졸이상이 가장 많았다(아버지, 203명(47.1%); 어머니, 250명(58.0%)).

측정도구

언어학대 척도

청소년기 언어학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성혜(1987)가 개발한 아동용 언어학대 척도 15개 문항을 연진영(1992)이 20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고, 김현주(2002)가 5요인 25개 문항으로 사용한 것을 각 문항의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언어학대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α=.93이였다.

양육태도 척도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개발한 양육태도척도 중 애정차원 10문항과 통제차원 10문항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2점 척도이고, 애정이 높고 통제가 낮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본 연구의 신뢰도는 α= .76이였다.

사회적 철수 척도

오경자 등(1998)이 개발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에서 위축과 관련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3점 척도로 본 연구의 신

뢰도는 α=.81이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안하고 이상균(199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 총 10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α=.72였다.

자료분석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가정을 배제한 후, 단순회귀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언어학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언어학대양상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원망적 언어, 위협적 언어, 경멸적 언어, 거부적 언어, 적대적 언어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부모(M=15.31)와 모(M=7.70)에게서 거부적 언어학대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반응했고, 부에게서는 거부적 언어학대(M=7.62)보다는 경멸적 언어학대(M=7.65)를 더 많이 받았다고 반응했으나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위협적 언어학대에 대해서는 부모, 부, 모 모두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M=4.93, 2.55, 2.39).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은 '꼴도 보기 싫어', '엄마(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너 같은 자식은 둔 적 없어' 등과 같은 부모의 거부적인 언어사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학대로 지각한 반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야', '말 안들으면 아무것도 사주지 않을 거야'와 같은 위협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언어학대로 지각하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2는 부모의 언어학대양상과 청소년의 심

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부, 모의 언어학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		부		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언어학대						
원망적 언어	12.69	4.38	6.31	2.52	6.38	2.43
위협적 언어	4.93	1.72	2.55	1.08	2.39	.99
경멸적 언어	15.25	4.94	7.65	2.76	7.60	2.90
거부적 언어	15.31	3.76	7.62	2.01	7.70	2.13
적대적 언어	10.97	2.81	5.50	1.65	5.47	1.52

표 2. 부모의 언어학대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적 철수	자아존중감
언어학대		
원망적 언어	.20**	-.17**
위협적 언어	.14**	-.15**
경멸적 언어	.24**	-.12*
거부적 언어	.23**	-.11*
적대적 언어	.19**	-.16**

**p< .01, ***p< .001

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의 언어학대의 하위유형과 사회적 철수 및 자아존중감을 상관분석한 것이다.

표 2에서 부모의 언어학대의 모든 하위유형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철수와 자아존중감에 각각 유의한 정적 그리고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철수에 대해서 원망적 언어는 .20, 위협적 언어는 .14, 경멸적 언어는 .24, 거부적 언어는 .23, 적대적 언어는 .19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원망적 언어는 -.17, 위협적 언어는 -.15, 경멸적 언어는 -.12, 거부적 언어는 -.11, 적대적 언어는 -.16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의 언어학대를 예언변인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철수와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결과, 부모의 언어학대는 사회적 철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4, F=26.95, p<.001),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 F=10.88, p<.01).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언어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철수 경향이 높고, 자아존중감

표 3. 부모의 언어학대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회귀분석한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F
사회적 철수	언어학대	.24	5.19***	.06	26.95***
	원망적 언어	.01	.08	.07	5.96***
	위협적 언어	.00	.08		
	경멸적 언어	.16	2.17*		
	거부적 언어	.15	1.83+		
	적대적 언어	.03	.41		
자아존중감	언어적 학대	-.16	-3.30***	.03	10.88**
	원망적 언어	-.16	-2.01**	.03	3.03**
	위협적 언어	-.09	-1.63		
	경멸적 언어	-.03	.46		
	거부적 언어	-.01	.06		
	적대적 언어	-.01	.07		

+p< .1, *p< .05, **p< .01, ***p< .001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언어학대의 각 하위유형별로 사회적 철수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멸적 언어와 거부적 언어만이 사회적 철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인 반면(β=.16, p<.05, β=.15, p<.1, F=5.96, p<.001), 원망적 언어만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 F=3.03, p<.01). 따라서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언어적 학대보다도 부모의 경멸적이고 거부적인 언어학대에 대해서 더욱 더 민감하게 사회적 고립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언어학대보다도 원망적 언어학대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예언변인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철수와 자아존중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봐와 같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철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고(β=-.22, F=20.87, p<.001),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 F=33.88, p<.001). 따라서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낮은 사회적 철수경향을 보였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부모의 언어학대,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학대와 긍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사회적 철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거부적 언어와 긍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철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β=.19, β=-.15, F=18.57, p<.001), 긍정적 양육태도만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 F=18.23, p<.001).

언어학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검증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 3과 표 5의 결과를 비교한 것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표 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회귀분석한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F
사회적 철수	긍정적 양육태도	-.22	-4.57***	.05	20.87***
자아존중감		.27	5.82***	.07	33.88***

**p< .01, ***p< .001

표 5. 부모의 언어학대, 긍정적 양육태도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F
사회적 철수	언어학대	.19	7.94***	.08	18.57***
	원망적 언어	.04	.46	.09	6.93***
	위협적 언어	.04	.68		
	경멸적 언어	.14	1.90		
	거부적 언어	.17	2.06*		
	적대적 언어	.03	.38		
	긍정적 양육태도	-.15	3.11**		
자아존중감	언어학대	-.08	-1.57	.08	18.23***
	원망적 언어	-.11	-1.51	.08	6.42***
	위협적 언어	-.03	-.54		
	경멸적 언어	-.06	-.87		
	거부적 언어	-.02	-.24		
	적대적 언어	.00	.04		
	긍정적 양육태도	.25	5.00***		

*p< .05,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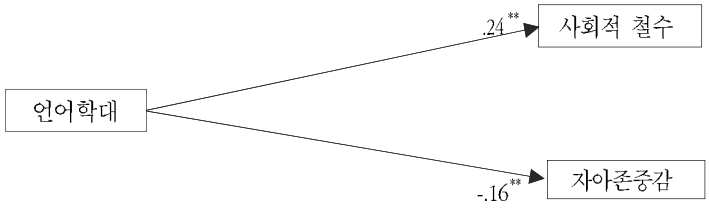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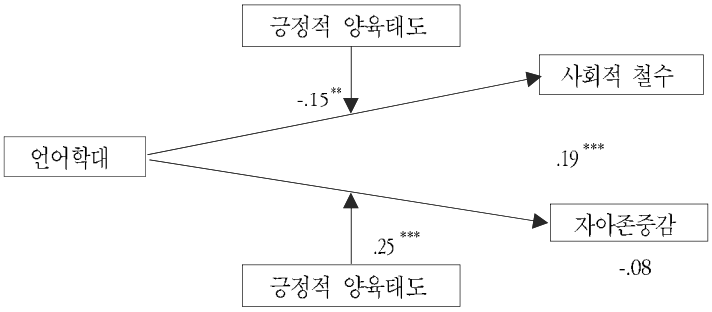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긍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언어학대가 사회적 철수에 영향을 미칠 때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β=.24에서 β=.19로 감소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은 β=-.16에서 β=-.08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청소년기는 부모에게서 점차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시기이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적응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애정어린 태도로서 이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훈육을 핑계삼은 부모의 지나친 폭언은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자녀에게 심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남자 226명, 여자 205명)을 대상으로 가족 내 만연되어 있고 아동기 때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부모의 정서적 언어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정상 가정 내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기 언어학대양상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부모, 부, 모로부터 거부적인 언어학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위협적인 언어학대를 가장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아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온 위협적인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다소 습관적으로 둔감화된 경향을 보이나, 청소년기를 제2의 반항기라고 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듣는 거부적인 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언어학대는 사회적 철수에 유의한 정적 상관 및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상관 및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경멸적 언어나 거부적 언어를 들을 때 보다 더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원망적 언어를 들을 때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게서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자녀일수록 위축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곽영숙과 홍강의(1986), 김경주(1997) 및 김혜련(1994)의 연구를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언어학대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는 서영숙(2001)과 Solomon과 Serres(1999)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셋째, 부모의 언어학대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긍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부모의 언어학대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회귀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언어학대가 사회적 철수에 영향을 미칠 때 긍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사회적 철수 경향은 감소하는 한편, 자아존중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가족 내 자녀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 양육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강지영(2002)과 김정이(2004)의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가족 내 건강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한 개인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학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 학대의 원인을 부모-자녀관계 차원에서 사정하고 부모의 개입을 통한 예방과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일부 특정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유목적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 언어학대양상을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후속연구에서는 실제로 학대받고 있다고 보고하거나 인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례들과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보고한 부모의 양육태도, 언어학대만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이를 볼 수 있는 양방향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으로 실시된 연구임으로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내재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학대의 실상이 축소·왜곡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면담이나 행동평가 및 녹화와 같은 객관적인 언어학대측정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언어학대는 단순히 청소년의 인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장,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언어학대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적극 개발·보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헌장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임과 동시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이다. 청소년 학대의 조기발견은 학대받는 부모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지영 (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성혜 (1989).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61-171.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곽영숙, 홍강의 (1986).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양대 정신건강연구, 5, 37-52.

김경주 (1997).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6(8), 39-50.

김광일 (1988). 부부폭력의 임상적 실제. 한양대 정신건강연구, 9, 174-183.

김재엽 (1998). 한국 가정의 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학, 6(1), 41-64.

김정이 (2003).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비합리적 신념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2002).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련 (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이 심리사회적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미영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영숙 (2002).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2), 51-73.

서울신문 (2003. 8. 8). 아동학대 사회적 관심 가져야.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서울행동과학연구소.

이혜련 (199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2000.5.25). 억눌린 분노-공격성 부모에 순간 폭발.

허남순 (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아동복지학, 창간호, 23-45.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M. C.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New York: Sage Foundations.

Brenner, A. (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Lexington, Mass: Health and Company.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Emery, R. E.(1982). Interperson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Fishbein, M. & Aizen, I. B. (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Gelles, R. J. & Straus, M. A.(1988). *Intimate Violence*. New York: Simon & Schuster.

Halperin. (1979).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S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 Psychology*, 33, 333-350.

Holbrook, P. E.(1992), *The verbally Abusive relationship: How to Recognize it and How to Respond.* Adams Media Corporation.

Hurlock, E. B. (1973). *Tran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McGrawHill

Kogakusha, Ltd.

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 (1997). *Study findings: Study of National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1993).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Kauffman, J. M. (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Ketterman, G. H.(2000).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임종원 역.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Kristyn, B. M. (2002). The Effects of Positive Peer Reporting on Children's Social Involvement. *The School Psychology Review*, 31, 2, 225-245.

Robin, K. H. & Mills, R.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16-924.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Sear, R. R., Maccoby, E. E., & Levin, H.(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Evanston*. Illinois: Row, Paterson & Co.

Solomon, C. R. & Serres, F. (1999). Effects of parental verbal aggressio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marks. *Child Abuse & Neglect*, 23, 4, 339-351.

Straus, M. A.(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t*, 15, 223-238.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ombia University.

Tremblay, R.(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2, 129-141.

Westerman, M. A., & La Luz, E. J. (1995).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1, 453-470

원고접수일 : 2006. 1. 4
게재결정일 : 2006. 9. 14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953-967

Influence of parent's verbal abuse and child-rearing on adolescent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Nam, Soonhyeon Lim, Soyoung

Honam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parents' positive attitude to child-rearing perceived by their adolescent children 431(226 boys, 205 girls) has moderating of emotional-verbal abuse by parents, that has occurred since childhood but not recognized by the child,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the adolescen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use of rejecting word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teenage children, and parents' use of threatening verbal abuse to have a non-significant effect. Second, parents' verbal abus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aggravating effect on social withdrawal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and a highly lowering effect on the self-esteem. Third, The result showed that the parents' positive attitude reduces their adolescent children's tendency of social withdrawal which was originally caused by verbal abuse, and enhances the self-esteem which was once diminished.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although verbal abuse by parents which is frequently occurring within families but not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hampers healthy adolescent development, a positive change can still take place depending on the parents' attitude toward parenting perceived by their teenage child.

Keywords : adolescence verbal abuse by parents, positive attitude to child-rearing, psychosocial adjustment, social withdrawal, self-esteem